



모바일 한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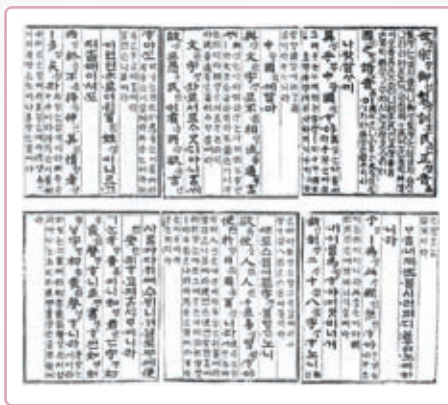
‘한글’은 지구상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다. 이 정의에 대해 누구도 설불리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구상의 문자들을 보면 낱자를 일렬로 나열해 사용하거나, 뜻을 가진 낱글자 하나씩을 사용하는 방식의 문자가 대부분이다. 한글처럼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조합되고 창의적으로 생성돼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다. 한글의 원리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다보면 조상들의 뛰어난 창의력에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하게 되며, 이 언어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자’라는 가시적인 기호가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민족의 얼을 담고 있는 우리 말 ‘한글’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우 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진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깨우쳐 날로 씬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언해)

세종대왕은 1443년 한글을 창제하고, 위와 같이 한글 창제의 이유를 밝혔다. 간단히 정리해 말하자면 ‘우리말의 뜻을 서로 통하게 하는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 내놓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바야흐로 5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의 말씀처럼 ‘날로 씬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언해본. 중국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서 창제하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단말기가 달라서 서로 입력방식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에 편한’ 문자가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글자로 인정받는 우리 민족의 유산이자 언어도구가 됐다. 1997년 10월에

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서로 통하지 않는 한글 입력 방식

하지만, 지금의 한글에 대해 세종대왕께서 한 말씀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한글 입력이 휴대폰 단말기마다 달라서 제조사들마다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엄지족들이 쪽글(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단말기가 바뀌면 어색해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그렇다. 컴퓨터 자판에서는 한글 자판 배열이 대체로 비슷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한글 입력에 있어서 당황해하거나 어색해하는 경우가 없지만(물론 간혹 3벌식 자판으로 세팅돼 있는 컴퓨터도 하지만), 유독 휴대폰에

있어서는 각 기기마다 한글 자판 배열도 다르고 입력 방식도 판이하게 달라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는 분당 200타 이상을 자랑하며 문자를 입력하던 사용자도 막상 다른 휴대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려면 독수리타법도 아닌 병아리 모이 쪼는 타법으로 헤매기 일쑤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던 의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쉽게 깨우쳐 날로 씬에 편한' 문자 입력 방식이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선 각 회사마다 독자적인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설정 및 권리 주장을 하다보니 경쟁적으로 자사 방식을 만들게 됐고, 그만큼 종류가 다양해졌다. 이에 더해 한글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 역시 온갖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한글 입력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며, 특히 출원과 자판 배열 방식을 개발하게 되면서 가짓수가 많아졌다.

바뀌 생각해 보면, 한글의 우수한 창제원리 및 조합, 생성 능력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마치 정상 봉우리는 하나인데 그곳에 이르는 등산로가 여러 개인 산과 같이 휴대폰에서 12개의 단추만을 이용해 한글을 입력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생겨난 원인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나마 한글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알면 알수록 과학적인 한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뤄져 있고, 이것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돼 한 음절을 이루게 된다. 기본적으로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합해서 24개의 음소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글을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인 한글의 특징을 간추려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자음과 모음의 기본 모양은 발성기관과 우주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양을 본뜬

글자로 소리를 내어보면 누구라도 쉽게 그 글자 모양을 생각해낼 수 있다.

- ㄱ : 목구멍 쪽에서 위로 당겨진 혀의 모양을 형상화
- ㄴ : 윗니 뒤쪽에 혀를 댈 때의 혀의 모양을 형상화
- ㄹ : 입술이 오무라진 모양을 형상화
- ㅅ :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아 있는 모양을 형상화
- ㅇ : 목구멍 모양을 형상화
- ㆍ : 하늘(天)을 의미
- ㅡ : 땅(地)을 의미
- ㅣ : 사람(人)을 의미

- 기본 자음 모양에 획을 더해 추가 자음을 만들었다. 또한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된 소리를 나타내는 자음을 만들었다. 이렇듯 같은 방식으로 발성하는 문자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이뤄지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기본 글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에 획을 그어가며 관련 문자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영어의 'D'와 'T'가 같은 조음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유성음과 무성음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모양은 전혀 상관없으며, 일본어의 'さ(사)'와 'し(시)'가 같은 행에 있음에도 그다지 연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비교해 볼 때, 한글은 어느 언어도 흉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창제된 뛰어난 글자라 할 수 있다.

- ㄱ → ㅋ → (ㄱ)
- ㄴ → ㄷ → ㄹ → (ㄴ)
- ㄹ → ㄺ → (ㄹ)
- ㅅ → (ㅅ)
- ㅅ → ㅆ → ㅈ → (ㅅ)
- ㅇ → ㅎ

- 천(·), 지(ㅡ), 인(ㅣ)을 1차적으로 결합해 초출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해 재출자를 만들어 이들을 기본 모음으로 삼았다. 이 기본 모음에 'ㅣ' 반모음 성격이 붙거나 모음이 합해져서 11개의 복모음이 만들어졌다. 모음의 모양을 보면 가로 내지는 세로로 된 선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지인 한글에서는 이중 짧은 획을 'ㆍ'로 설정돼 입력 방식을 구현했으며(실제로 훈

민정음 제자 원리에서도 그러하다), 나머지 입력 방식에서는 '획의 추가' 개념과 '모음 +모음'의 개념으로 모음 입력을 해결했다.

- 기본자 : ㅡ, ㅣ, ㆍ (현재 사용되지 않음)
- 초출자 : ㅏ, ㅑ, ㅓ, ㅕ
- 재출자 : ㅗ, ㅛ, ㅜ, ㅠ
- 복모음 : ㅘ, ㅙ, ㅚ, ㅜ, ㅞ, ㅟ, ㅠ, ㅡ, ㅢ

- 한글은 모양을 본뜨고(상형, 象形), 획을 더하고(가획, 加劃), 이를 더해 사용(합용, 合用)해 이뤄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을 초성·중성·종성으로 결합하면 낱글자가 만들어진다. 자모의 조합 방식이므로 낱글 자음과 모음의 수는 적지만 생산할 수 있는 낱글자의 수는 무궁무진하다.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는 글자는 1만1,172자에 이르며, 이는 조합형 한글 코드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글 전산처리 위한 코드 작업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한글을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진법에 의한 코드 처리가 필요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며, 많은 논의 끝에 1987년에 이르러서야 정부 주도하에 KSC5601-1987이라는 표준 한글 코드가 발표됐다.

한글 코드의 표준화를 둘러싸고 가장 민감하게 논의됐던 부분으로 조합형 한글코드와 완성형 한글코드 문제를 들 수 있다.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에 입각해 조합 가능한 글자를 모두 표기할 수 있는 조합형 한글코드와 주로 사용되는 낱글자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 이를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 제공하는 완성형 한글 코드 방식이 대립했다. 결국 정부에서는 KSC5601-1987이라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완성형 코드를 표준으로 삼게 됐다. 이 KSC5601은 표준 한글 음절 2,350자, 한자 4,888자, 특수문자 1,128자, 나머지 470자로 이뤄진 문자집으로 발표된 후 각종 학계와 산업계에서 비판의 여론이 높게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엄청난 생산능력과 변형능력을 갖춘 한글에게 고작 2,350개의 음절만을

모바일 핫토크

할당했다는 것은 나머지 글자를 못 쓰게 하는 조치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항상 이 설명에 따라다니는 예를 여기서도 사용해 설명하자면, ‘똥방각하’의 ‘똥’이나 ‘커피숍’, ‘브레이크’의 줄임말이라고 우기는 ‘뽕’ 등의 글자를 입력할 수 없는 규정이 생긴 것이었다. 결국, 이후 보완작업을 거쳐 일부는 완성형 한글로, 일부는 조합형 원리로 쓰는 방식도 도입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표준 코드는 논쟁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모바일에 사용되는 한글 코드 역시 KSC5601-1987로 이해하면 되며, 여기에 폰트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한자 등 불필요한 부분의 균살을 제거한 초슬림 한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제는 메모리도 좀 넉넉해지고 추가 한글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어서 최근 발표되는 휴대폰 가운데에는 기존 제품에서 입력되지 않던 ‘뽕’이나 ‘똥’과 같은 글자 입력도 지원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코드에 없는(?) 한글’을 써서 일반 수신자 단말기에 쪽글로 보내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글자가 나타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한글의 생성 원리와 KSC5601의 특징을 참고해 각 단말기 제조사의 한글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단말기 제조사마다 다른 한글 입력 방식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자기 휴대폰의 배터리는 이미 방전된 상태. 급한 김에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심지어는 행인한테 휴대폰을 빌린다. 아무리 인정이 메마르고 인간미가 사라진 사회가 됐다고는 하지만, 휴대폰 인심만은 그다지 박하지 않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눈치를 보가면서 전화를 해보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쪽글이라도 남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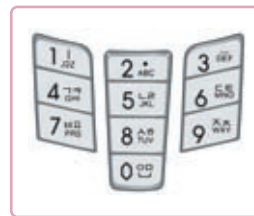
‘나 XX인데, 휴대폰 방전돼서 다른 사람 폰 좀 빌렸음. 30분만 더 기다려 줘. 미안.’이라는 메시지라도 보내야 약속 착오가 없을 텐데.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편지봉투 모양의 버튼을 눌러 문자 메시지 작성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는 지금껏 천지인 한글만 사용해왔는데, 이 휴대폰은 VK에서 나온 제품으로 ‘승리한글’ 방식 자판이다. 주변에서

나를 가리켜 ‘나름대로 문자의 달인’이라 부를 정도로 내 휴대폰으로는 화면을 보지 않고서도 문자를 입력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췄는데 이 자판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할 수 없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빌리거나, 곳곳이 눈총을 받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얌전히 또박또박 입력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주인에게 문자 입력 대행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왜 휴대폰에서 한글 입력하는 것들은 각양각색이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현재 삼성전자와 KTFT의 경우에는 ‘천지인’, 팬택 계열에서는 ‘한글사랑’과 ‘스카이 II’ 방식을, LG전자는 ‘ez한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VK는 독특한 방식의 ‘승리한글’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모토로라에서는 쉬프트 키를 연상케 하는 색다른 한글 입력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휴대폰 제조사가 다르면 한글 입력에서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들은 어떤 식으로 한글을 입력하는지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고길 바란다.

● 삼성전자와 KTFT서 사용하는 ‘천지인’ 한글



대표적인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 ‘천지인’ 한글

삼성전자는 ‘천지인’ 방식을 지난 99년부터 채택했고, EVER 폰을 제조하는 KTFT에서도 자사 보유 특허인 ‘듀얼 폴더 특허’를 삼성전자와 공유하는 조건으로 ‘천지인’ 방식 사용권을 획득했다.

천지인 방식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봤던 모음 생성 원리다. 물론 자음 역시 같은 류를 한데 묶어 입력하도록 배치했음을 알 수 있다.

천지인(天地人, · ㅡ ㅣ)을 나타내는 3개의 모음 자판과 7개의 자음 자판으로 입력하는 이 방식은 한글 창제 원리를 그대로 도입해 사용법을 이해하고 익히기 쉽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모음을 입력하는 경우, 천지인의 제자 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글씨 쓰는 순서대로 획을 더해가면 바로 글자가 이뤄지며, 자음의 경

우에는 멀티태핑 방식(같은 단추를 여러 번 누르는 방식)으로 기본자음에서 파생된 추가자음을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자음과 모음을 자판의 위·아래로 분리해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단점도 있다. 멀티태핑 방식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다른 한글 입력 방식에 비해 입력 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같은 자음을 연속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령, ‘난리’ · ‘연락’ · ‘금요일’ · ‘국가’ 등)에는 방향키를 써서 강제로 한 칸 옮기거나 잠시 입력을 멈추고 대기해야만 한다. 방금 전 입력한 글자에 대해 자모 단위의 삭제가 되지 않고 글자 단위로 지워지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 발표되는 제품에서는 자모 단위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입력 사례〉

- 자음의 경우: ‘ㄱ’을 입력하려면, ‘4’를 연속 세 번 누름
- 모음의 경우: ‘예’를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3, 2, 2, 1, 1’을 차례로 입력
- 같은 자음이 종성과 다음 글자의 초성에 쓰이는 경우: ‘난리’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5, 1, 2, 5, →(혹은 잠시 입력 대기), 5, 5, 1’을 입력해야 함

● LG전자의 ‘ez한글’



LG전자의 ez한글 방식. 획을 추가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쌍자음 버튼을 마련한 것이 특징.

천지인 한글과 맞먹는 한글 입력 방식으로 ez한글이 있다. 판단 기준을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지인 한글과 ez한글 방식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있어서 꽤 좋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천지인’ 한글 도입에 맞서 같은 해 ‘ez한글’ 방식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가획’의 원리와 ‘쌍자음 버튼’의 마련에 있다. ‘가획’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설명할 때 말한 바와 같이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가는 것으로, 천지인이

멀티태핑 방식을 활용해 같은 종류의 자음을 순차적으로 바꿔 선택하는 반면, ez한글은 기본글자 단추를 누른 후 획을 더해서 자음을 선택한다. 쌍자음이 필요할 때에는 기본 글자 이후 쌍자음을 누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자음이 한 버튼에 하나씩 배당돼 있어서 연속 자음이 발생해도 피어쓰기가 편하며, 기본 모음이 바로 마련돼 있어 좀더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기본 글자가 많지 않아 주로 글자를 조합해 사용하므로 별표와 샤프 단추를 많이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음의 획 추가 부분에서 해매는 신규 사용자가 종종 눈에 띄기도 한다.

<입력 사례>

- 자음의 경우: 'ㅍ'를 입력하려면, 5, *, * 을, 'ㅍ'을 입력하려면 5, *, # 을 입력
- 모음의 경우: '네'를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6, 6, 3, 9 를 차례로 입력
- 같은 자음이 종성과 다음 글자의 초성에 쓰이는 경우: '널리'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2, 3, 2, 4, 9' 을 입력(자음 겹침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됨)

● 팬택 계열의 '스카이II'



스카이II 방식 한글 자판. 기본 모음이 모두 표시된 상태 특징.

기존 SK텔레텍(현재 SKY텔레텍)이 팬택 계열로 편입되면서, SKY텔레텍 및 팬택 계열 휴대폰에도 '스카이II' 방식의 한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전 '스카이' 한글에 이어 발표된 '스카이II' 방식은 6개의 자음 버튼과 4개의 모음 버튼으로 구성돼 있다. 모음의 경우, 기본 사용 모음이 모두 자판에 표시돼 있어 입력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 자음의 경우에도 된소리(쌍자음)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이 모두 자판에 표시돼 있어 찾기 쉽다.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평이다.

하지만 '천지인' 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속된

자음 입력 시 구분이 어려우며, 한 버튼에서 다른 성질의 자음이 함께 배치된 것들이 있어 헷갈릴 수도 있다. 또한 빈칸 입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입력 사례>

- 자음의 경우: 'ㅍ'를 입력하려면, 7 을 세 번 연속 입력
- 모음의 경우: '네'를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 6, 2 를 차례로 입력(확인 필요)
- 같은 자음이 종성과 다음 글자의 초성에 쓰이는 경우: '널리'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5, 3, 5, - (혹은 잠시입력 대기), 5, 5, 2 를 입력

● VK의 '승리한글'

한글 입력하기

자음 입력방법

- 단모음 : 자음 키를 한 번 누르면 해당 자음, 두 번 누르면 두번째 자음이 입력됩니다.
- 쌍자음 : 사용하는 영자음이 단자음 *C, *K, *S를 누르면, *C를 누르면 *CC, *K를 누르면 *KK, *S를 누르면 *SS가 입력되며, *C를 누르면 *CC를 누르면 *CCC, *K를 누르면 *KKK, *S를 누르면 *SSS가 입력됩니다.

자음	C	K	S	B	M	N	L
포대본	가 (C)	ㅋ (K)	ㅅ (S)	ㅂ (B)	ㅃ (M)	ㅄ (N)	ㄹ (L)

모음 입력방법

- 단모음 : 영자본의 키에서 *를 누른 뒤, 세로 혹은 가로 방향의 자음 키를 누르면 단모음이 입력됩니다.
- *C : 'ㄷ'을 입력하려면 *C를 누른 뒤 세로 방향의 자음 키를 누르면 *CD가, *C를 누른 뒤 *C를 누르면 *CC가, *C를 누른 뒤 *K를 누르면 *CK가, *C를 누른 뒤 *S를 누르면 *CS가 입력됩니다.
- *K : 'ㄷ'을 입력하려면 *K를 누른 뒤 세로 방향의 자음 키를 누르면 *KD가, *K를 누른 뒤 *C를 누르면 *KC가, *K를 누른 뒤 *S를 누르면 *KS가 입력됩니다.
- *S : 'ㄷ'을 입력하려면 *S를 누른 뒤 세로 방향의 자음 키를 누르면 *SD가, *S를 누른 뒤 *C를 누르면 *SC가, *S를 누른 뒤 *K를 누르면 *SK가 입력됩니다.

복모음	모	막	방	법
ㅏ	(O)	(A)	(E)	(U)
ㅑ	(O)	(A)	(E)	(U)
ㅓ	(O)	(A)	(E)	(U)
ㅕ	(O)	(A)	(E)	(U)
ㅗ	(O)	(A)	(E)	(U)
ㅛ	(O)	(A)	(E)	(U)
ㅜ	(O)	(A)	(E)	(U)
ㅠ	(O)	(A)	(E)	(U)
ㅡ	(O)	(A)	(E)	(U)
ㅣ	(O)	(A)	(E)	(U)

VK의 승리한글 입력 방식. 모음의 입력 방식이 독특.

VK의 휴대폰에 탑재돼 있는 '승리한글'은 한글 입력에 있어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음의 경우, 여러 번 눌러서 해당 자음을 선택하고, 쌍자음을 쓸 때에는 해당 자음을 먼저 입력한 후 # 을 누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LG전자의 ez한글에서 본 것과 흡사하다. 모음의 경우가 상당히 특이하다. 짧은 가로나 세로획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완성된 단모음이 입력되며, 여기에 가로 세로 획을 더해서 모음을 완성하게 된다.

가령 '깨'의 경우 '-, -'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ㄱ'이 나타나며, 여기에 'ㅣ'를 덧붙여 'ㅋ'를 만든다.('-'만 눌러도 기본적으로 'ㄱ'로 인식한다.) 이 역시 같은 자음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익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 모토로라의 '쉬프트키 방식'



모토로라 레이저의 한글 자판 배열. 전형적인 멀티태핑 방식을 사용.

모토로라 제품에서의 한글 입력 방식 역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자음을

각각의 단추에는 두 개의 음소가 적혀 있다. 첫 번째 것을 쓰려면 당연히 그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두 번째 것을 쓰려면 해당 버튼을 누르고 # 버튼을 눌러야 한다. 마치 컴퓨터의 쉬프트 키를 눌러 사용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된다. 컴퓨터에서는 주로 쌍자음을 표기할 때 이러한 쉬프트 키를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모음에서는 방식이 다르다. 모음 역시 하나의 단추에 두 개의 음소가 적혀 있다. 이때는 쉬프트 대신에 같은 키를 두 번 눌러서 선택해야 한다. 모음에서의 쉬프트 키는 획을 더하는 복모음 개념으로 사용된다.

● 대안으로 나온 다른 한글 입력 방식들

휴대폰에서의 한글 구현은 주로 12개 키에 의해 구현된다. 0~9까지, 그리고 *과 #을 포함해 총 12개의 단추에 글자와 기능을 지정해 입력하게 된다. 워낙 생성 조합방식이 다양하고 변형 능력이 탁월해서일까?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해 앞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입력 방식이 연구되고 특허 출원 등록을 한 상태다. 이 분야의 특허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300개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추측이다.

이러한 문자 입력 부분은 휴대폰에서뿐만 아니라 MP3플레이어,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PMP,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복사기, 팩스, 노래방 기기 및 TV 리모콘, 심지어는 디지털카메라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하나로 요청되고 있다.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받아들여 기록하고 검색하고 이동하고자 할 때 당연히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에 별도의

모바일 핫토크

자판 마련 없이 가장 단순한 숫자 키만을 이용해서 글자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SL소프트는 '0.1초'라는 이름의 문자입력 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 버튼에 가로 획이나 세로 획 등 하나의 기호만을 배치해 글을 쓰는 것처럼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ㄱ'을 입력하려면 한글 글쓰기 순서에 따라 2번 버튼과 6번 버튼을 누르면 되고, 쌍자음 'ㄲ'은 2번, 6번, 0번의 순서로 입력하면 된다. 모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자체적인 테스트 결과 중문과 장문 테스트에서 빠른 입력속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마사소프트의 '퀵타한글' 자판 배열

아마사소프트는 기존 12키 환경(쿼타한글)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기에서 별도의 키를 추가하지 않고서도 4개 혹은 8개의 방향키만으로도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퀵타미디어'를 개발했으며, 모모테크에서는 한글80, 한글88, 한글369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한글 입력분야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글80은 10개의 키에 자음키 7개와 모음키 3개를 배치하고, 문자의 유사성·빈도수·순서 등을 고려해 입력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 외에도 모비언스가 개발한 '패스타이프(Fastype)' 등도 있다.

'모' 아니면 '도' 인영어입력 방식



일본 휴대폰의 자판은 심플 그 자체랄 수 있다. 각 버튼에 행 단위의 문자가 배정돼 단지 히라가나인지 가타카나인지만 유의하고 쓰면 된다.

그렇다면, 국외에서는 어떤 방식의 문자 입력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 나라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 대전을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간단하게 통일돼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100개 남짓한 문자를 각각의 행별로 그대로 넣어두는 방식이다. 각 행의 다섯 번째 글자를 입력하려면 무조건 다섯 번 누르면 된다. 일본 표준한자를 쓰게 되므로 한자 입력 방식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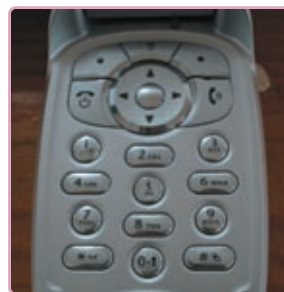
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냥 히라가나로 입력하면 추천 한자 방식으로 리스트가 뜨며,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사실 한글 입력처럼 빠른 자판 입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이메일을 쓰고, 인터넷을 한다.)



중국어(한문)를 획을 그어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자판 모양(노키아 모델)

어 발음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자판을 보면 왼쪽 획·오른쪽 획·가운데 획·점 등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글씨 쓰듯 이 획을 누르다 보면 문자 예상 시스템에서 예측 후보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 골라 입력하면 된다. 이보다는 주로 영어 발음을 이용한 입력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上海'를 입력하려면 [상하이]가 되므로 'shanghai'라고 입력해 나가면 된다. 단어를 다 입력하기 전에 추천 리스트가 나오면 그 중에서 해당 번호를 골라 입력하는 방식이다.

● 예측 기능을 활용한 영문 입력 방식



해외에서 사용하는 영문자판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하다. 국내 영문자판과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Predictive text input system이 도입된 경우가 많다.

세계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문 입력 방식을 살펴보면, 멀티태핑(무조건 여러 번 눌러서 선택하는 방식)도 사용되지만 좀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Predictive text input 방식이라 불리는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된다.(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추천 단어 선택 방식으로 T9 방식과 eZiText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LetterWise 방식도 도입돼 사용되기도 한다.

T9 방식은 미국 Tegic Communications 사(www.tegic.com)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단어 및 문법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입력 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저장돼 있는 사전과 비교해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eZiText 방식은 미국 Zi Corporation사(www.zicorp.com)에서 개발한 것으로 T9 방식과 유사하게 메모리에 저장돼 있는 단어 및 문법을 사용자 입력 사항에 맞춰서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Predictive text input system이라고 부른다. 가령 'tomorrow'라는 영어 단어를 이 방식을 통해 입력하려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t, o, m, o의 글자에 해당하는 8, 6, 6, 6을 순서대로 누르게 되고, 시스템은 메모리의 단어 사전을 뒤져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추천해 줘 사용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미국 Eatoni Ergonomics 사(www.eatoni.com)에서 개발한 LetterWise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사전 데이터 대신에 문자 입력시 개별 알파벳이 입력되는 확실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대기하고 있다 특정 알파벳이 입력된 후에 연이어 입력될 알파벳이 무엇인지 추측해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가령, 'quick'을 입력할 경우, 'q' 입력하면 q뒤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철자인 'u'를 추천해오며, 사용자는 추천된 것을 선택만 해주면 되는 방식으로 입력이 간편하다.

● 국내에서는 무조건 여러 번 누르는 방식 사용

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내 단말기에서의 영어 입력 방식은 무조건 여러 번 누르는 멀티태핑(Multi-Tapping) 방식이다. 가령 'c'를 입력하려면 '2'를 세 번 연속 누르면 된다(웹 주소 www를 누르려면, w,→,w,→,w과 같이 방향키로 강제 이동하면서 입력해야 한다.) 이 방식은 CDMA 기술 제공업체인 쉐콤사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능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특별한 사용료는 별도 지불하지 않지만

단순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입력 속도가 늦고 입력 타수가 많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영어 문장 입력을 많이 하지 않으므로 별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영어가 주사용 언어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멀티태핑 방식의 입력이 꽤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 모바일 단말기 업체들 역시 해외에서 사용되는 Predictive text input system 방식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한 상태지만, 실제 내수용 단말기 모델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수출모델에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다.)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어나 문법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에 미리 탑재해 두어야 하므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문자 메시지를 영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영어 문장 입력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사이트 URL을 입력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Predictive text input 기능의 예측과는 동떨어진 단어가 대부분이므로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다.('OTL'을 입력

하려고 하는데, 'other'와 같은 단어를 추천하고 있으면 오히려 추천받는 것이 귀찮게 여겨질 것도 같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식 통일 '필요'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해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 선택의 폭이 넓다' 정도일 텐데, 선택의 폭이 휴대폰 모델이 아닌 '제조사'의 선택에 불과하다면 넓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거창해 보인다. 한글 입력 방식 연구에 대해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허 도입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려는 회피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단점이라면 각 기기마다 다른 입력 방식에 사용자가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비롯해 이제 앞으로 문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장치들, 예를 들어, 일반 전화기·팩스·프린터·TV 리모컨·노래방 리모컨·MP3 플레이어·PMP·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 등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다른 한글 입력 방식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휴대폰은 천지인 방식을, 집전

화기에서는 ez한글을, 노래방에서 노래를 검색할 때에는 승리한글을 쓰게 될지도 모른다. 소모전으로 치달는 연구 개발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락 짓고, 12키 기반의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해 정책적인 표준화가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 말에서는 무턱대고 여러 번 눌러서 입력하면서도 불편을 못 느끼고, 영어로 발음을 넣어 추천되는 단어를 넣으면서도 재미있게 쪽글을 보내곤 한다. 한글은 너무 뛰어난 원리로 만들어진 글이다 보니 좀더 쉽고 좀더 편한 방식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같다. 좀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 이제는 정부나 협회 주도하의 정책적 표준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장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진정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만드는 작업에는 이러한 문자 입력 방식의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글 입력 방식의 표준화를 통해서 세종대왕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깨우쳐 날로 씬에 편한' 문자 입력 방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